

전북, 11월9-21일 화학공장 안전점검

전라북도는 최근 경북 구미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과 유사한 사고에 대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월9-21일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.

점검대상은 불산(불화수소산: Hydrofluoric Acid), 암모니아(Ammonia), 염산(Hydrochloric Acid) 등 유독물질을 연간 5000톤 이상 제조 및 사용하거나 200톤 이상 보관하는 30여곳이다.

전라북도는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, 유독물 관리대장 작성, 취급자 안전교육 시행, 방독면 같은 안전장비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해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사법조치 하기로 결정했다.

<화학저널 2012/11/08>